

어린이집탐방

천진어린이집

자연을 교재삼아 친환경·창의 교육

‘우리 서로 사랑해요’ 원훈 ...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제력·표현력 가르쳐

고성군 토성면 천진 해변길에 위치한 천진어린이집(원장 이연순)은 지난 1996년 58명의 원생으로 개원한 이후 그동안 3회에 걸쳐 정원이 증원돼 현재는 93명의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보금자리로 성장했다.



이연순 원장

천진어린이집은 ‘우리 서로 사랑해요’라는 원훈 아래 이연순 원장을 비롯한 9명의 교사와 2명의 조리사 등 모두 12명의 직원들이 해맑은 웃음이 함께하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천진어린이집은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보이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영·유아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 어린이들이 도시보다 많은 문화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자연을 교재삼아 친환경 교육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창의적인 활동을 하며 다양한 체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천진어린이집은 1996년 개원 당시 58명이던 원생들이 2003년에는 70명, 2008년에는 80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6월부터는 93명의 원생이 생활하고 있다. 지금도 어린이집 입학에 문의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시설이 비좁아 수용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천진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자제력을 길러주고 있으며, 풍부한 상상력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고 나눔과 기부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고성군 실내체육관에서 지역주민 및 각급기관사회단체장,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천진어린이집은 이와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교육운영 및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인사와 교사, 부모들이 참여하는 교육시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

는 데 앞장서고 있다. 매년 분기 1회, 연 4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원 모두가 주체의식 속에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고성군 최초로 농어업과 맞벌이 등으로 바쁜 부모들을 위해 휴일 및 평일 시간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해 부모들에게 한국어어를 가르치고 어린이집 가정통신문을 번역해 주는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연체험을 통한 그린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도 천진어린이집의 자랑이다. 산과 바다, 아름다운 호수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연체험을 통한 자기



천진어린이집 원생들이 이연순 원장과 텃밭가꾸기 활동을 하고 있다.

주도학습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부모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연순 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보육철학은 ‘영유아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자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천진 어린이집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29>

역사와 명소를 찾아서① 능파대(凌波臺)Ⅲ

두 편의 기행문과 문하생들의 수련장

능파대가 지역의 명소로 가치성은 예나 지금이나 많이 다르다. 선인들은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여행을 떠나 이곳을 찾아 헤아릴 수 없이 노래를 하였으며 많은 작품이 지금도 남아있다. 요즘은 주변에 볼거리가 많아서인지 아이들을 데리고 답사해 보면 여러 개의 모여 있는 단순한 바위들뿐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아이들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혜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간성지역의 경택재 문하생들 또한 늘 심신수양의 장소로서 자주 찾아오곤 하였다.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바다를 향해 이어진 바위 끝으로 있는 곳에 ‘대동시사(大東詩社)’라고 적힌 바위가 있다.

관동록(關東錄)= 홍인우(洪仁祐, 1515~1554)의 관동록(關東錄)을 보면 1553년 4월 9일 서울을 출발하여 금강산을 구경하고 5월 2일 아침 김사문(金河, 간성군수)이 초청하여 우리 세 사람(허국선, 남시보, 홍인우)이 가서 잠깐 만났다. 11리를 가서 선유담에 이르렀다. 어지러운 산록들이 두루 둘러 곱짜기를 이루고 있었다. 곱짜기 안에 연못(담)이 있는데 호수의 남쪽에 작은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어 호수에 반쯤 잠겨있다. 큰 소나무가 구불구불 휘어 그늘을 만들고 있어 그 아래에서 쉬었다. 순채(蓴菜)가 호수에 가득하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또 7,8리쯤 가니 하얀 모래가 눈과 같다. 사람과 말이 지나가니 쟁쟁 소리가 난다. 이것이 명사(鳴沙)

이다. 영동 지방의 바닷길은 모두 그러한데, 고성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더욱 그렇다. 해당화가 있어 어떤것은 어지러이 피어있고 어떤 것은 이미 열매를 맺기도 했다. 역시 기이하고 아름답다. 또 가서 능파대(凌波臺)에 올랐다. 섬의 서쪽은 모래 길과 연결되어 있다. 빼어난 봉우리가 바다 어귀까지 우뚝 솟아 있는데, 기괴한 바위들과 괴상한 돌들이 종횡으로 섞여 우뚝 서 있다. 우리 세 사람은 각기 한 봉우리씩을 차지하고 앉아서 경치를 즐겼다. 바다와 맞닿은 하늘은 맑고 아름다운데 만 리나 되는 푸른 바다는 탁 트인 채 그 모습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잠시 후 갑자기 동풍이 불자 성난 파도가 해안을 들이치는데 마치 천군만마가 마구 달려오는 듯하다. 여기서 능파대가 섬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금강록(金剛錄)= 정엽(鄭曄, 1563~1625)의 금강록(金剛錄) 작품은 양양 부사로 내려와 있던 1618년 4월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지은 기행문이다. 작가는 서울에서 온 두 사위 나만갑(羅萬甲)과 이상질(李尙質) 그리고 손자 원(援) 낙산사 주지승 원우(元祐)를 데리고 양양을 떠나 금강산을 가는 길에 남긴 기행문을 보면 ‘청간정에 가서 자고 2일 아침을 먹고 10리쯤 가니 산 한 자락이 물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름하여 능허대(凌虛臺)라고 하였다. 능허대 앞에 여러 개의 바윗돌이 쌓여 작은 섬을 이룬 곳이 있는데 나군과 이군

두 사위는 서둘러 그곳에 올라가 구경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능파대의 이름을 또 다른 표현으로 능허대라고 부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경택재(景澤齋)= 과거의 지방학교로는 서원과 향교, 서당에서 이루어져 학문의 길을 닦았다. 지금의 초등학교와 같은 서당에서 천자문, 명심보감, 격몽요결 등의 기초적인 학문을 익히고 향교로 진학하는 과정이었다. 간성지역에서는 서원은 없었고 향교만이 있었다. 간성향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간성 용연동(지금은 상리)에서 대대리, 해상리를 거쳐 현재의 교동리까지 여러 차례 이건을 거듭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옮겨진 연유에는 대대수가 터가 좁아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간성향교와 별개로 경택재는 죽도면 황포리(지금의 죽왕면 삼포리)에 있다고 한다. 태당이식이 고을 현감으로 왔을 때 학문을 장려하여 강학하던 곳으로, 태당이식의 문인인 미재(眉齋) 어제창이 중수하고 ‘경택(景澤)’이라고 편액을 하였으며, 영상 임백경이 기문을 남겼다고 한다. 『미재집(眉齋集)』에서는 간성지역의 문하생들이 태당



능파대에는 경택재를 중수한 어제창이 주도한 ‘대동시사(大東詩社)’ 유생들이 풍류를 즐긴 흔적이 남아 있다.

이식선생을 우리러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은 재실(齋室)을 짓고 경택재(景澤齋)라고 불렀다고 적고 있다. 문하생들은 주로 서삼경과 한시를 공부하였는데 아외에서는 즐곳 능파대를 찾아서 한시를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경택재를 중수한 어제창이 주도한 ‘대동시사(大東詩社)’ 유생들이 능파대에서 풍류를 즐긴 흔적도 남아 있다.



김 광 섭

- 향토사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